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평화와 희망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 되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국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5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 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강령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했고 어느덧 올해로 9회째에 이르렀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2019년까지 7년간 전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

개회사

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첫날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사회, 환경, 생명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구촌 기후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 드리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하고 자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지구촌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